

# 개혁주의 인간론과 경영학에의 적용

이갑두(경남대학교)

## 〈요약〉

본 연구는 경영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며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진리는 성격적 인간관에 입각해야만 한다는 것을 규명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경영 패러다임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인간론, 특히 개혁주의의 인간론을 바탕으로 논의했다. 개혁주의 신앙에서의 인간의 본질적 특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격체로서의 인간과 죄로 인해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변질되고 삼중적 관계가 파괴된 인간의 이중성이다. 이러한 인간은 궁극적인 행복, 선, 거룩, 영생의 가치를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즐거워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러한 인간의 행동은 하나님 형상과 삼중관계의 회복이라는 구원의 과정이며 이 과정을 이끌어 가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실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간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둘째, 기존의 경영학에 대한 문제점과 그 원인을 인간관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했다. 지금까지의 경영학은 기업조직을 대상으로 이윤 극대화라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통제 수단으로 사용하여 왔다. 과학적 관리를 시작으로 관계적 접근, 인적자원 접근, 자기주도 자아개발 접근으로 변화하면서 인간행동의 초점을 변화되어 왔으나 기본적인 인간관은 유물론적 인간관, 즉 물화된 도구적이고 기계적 인간관과 자기중심의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인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셋째, 개혁주의 인간론의 경영학 적용을 통해 새로운 경영학의 패러다임을 제안하였다. 개혁주의 인간론에 근거하여 기업은 창조된 인격체인 동시에 불순종으로 인해 타락한 죄인의 양면성을 가진 사람들이 부여받은 재능과 능력(형상의 구조적 측면)과 다른 자원을 활용하여 궁극적인 영생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가치를 목적으로 하나님과 이웃 사랑의 표본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삼위하나님의 통치(이끌림)가 있는 공동체라고 정의하였다. 기독교경영이란 핵심목적을 탁월하게 달성하기 위해 성경적 원리를 가치창출 활동에 적용해 가는 과정인데, 기독교경영의 몇 가지 과제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적의 도출인데, 여기서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을 완벽하게 행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목적이다. 둘째, 목적을 탁월하게 성취해야 하는 원리는 변질된 하나님 형상과 파괴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셋째, 가치창출 활동으로 경영의 전 영역으로 표현되는 구조에 해당한다. 넷째, 적용 과정은 구조적 및 과정적 적용, 즉 사람과 제도에 성경적 원리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핵심어 : 개혁주의, 인간론, 경영학, 하나님의 형상, 타락한 죄인.

## I. 서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 혹은 결과는 어떤 행위 혹은 활동으로 나타난다. 어떤 행위의 주체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차별적인 특징은 사고, 즉 생각한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현상이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인간의 사고, 즉 생각 혹은 세계관을 이해해야만 한다. 그런데, 인간의 사고는 그 사람이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즉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어떤 해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해답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이다. 더불어 삶의 진리를 추구하는 모든 학문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즉 인간의 본질에 대한 논의 혹은 가정은 연구의 출발점이 된다.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찾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학문 분야로서는 철학을 들 수 있다. 전통적으로 철학에서는 대표되는 인간론은 관념론적 인간론과 유물론적 인간론이다. 관념론적 인간관은 인간을 기본적으로 영혼으로 간주하고 인간의 신체는 인간의 실제 본성에 있어서 이질적인 것으로 본다. 이러한 사상은 플라톤을 대표로 하는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을 신봉하는 이들은 영혼 불멸성은 가르치지만 몸의 부활은 부정한다. 한편, 유물론적 인간론은 인간은 물질적 요소들로 구성된 존재이며 인간의 정신적, 감정적, 영적인 삶은 단지 인간의 물질구조의 부산물일 뿐이라고 한다. 마르크스주의의 역사에 대한 경제 결정론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유물론적 관점 내지 자연주의적 관점에 의존한다. 유물론적 인간론은 인간은 사회구조의 일부이며, 악은 그 구조에서 생겨나며 그 구조의 변화에 의해서만 제거될 수 있고, 개인은 그가 행하지도 모르는 악에 대해 일차적 책임이 없으며 사회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높은 관심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존재론의 문제보다 인식론의 문제가 일차적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실존주의의 대두로 인간의 실존이 인간의 본질보다 더 중요하며, 한 사람의 독특하고 되풀이 할 수 없는 점은 그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공유한 공통점보다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인본주의를 등장시켰지만, 이러한 인본주의도 인간적 가치를 위협하는 과학기술의 우위성, 관료제의 성장, 대량생산방식의 증가, 대중매체의 영향력 증대, 소수에 의한 대중의 조작 가능성 증대, 인명 존엄성에 대한 의문, 인종주의, 소외문제, 평등문제, 권위에 대한 존경 감소 등으로 위기에 직면하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긴급성을 띠게 되었다(Hoekema, 1986).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경영을 연구하는 자로서의 삶은 신앙과 학문을 어떻게 관련시킬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신앙이란 바라는 것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다(히11:1). 여기서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진리이신 삼위일체의 하나님,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을 일컫는다. 따라서 기독교인의 삶은 진리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을 앞으로 인간으로서 자유(복)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다(요8:31-32). 학문이란 궁극적으로 진리를 찾아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며 경영학은 궁극적으로 경영 활동을 통해 진리를 찾아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인으로 경영을 연구하는 자의 근본적인 태도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진리로 믿고 이를 알아서 경영을 통해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원칙이나 규칙을 탐구하는 것이다. 결국 신앙이나 경영이나 궁극적으로는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원리나 원칙이 적용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기독교적 신앙에서의 인간관의 이해를 바탕으로 경영학의 인간관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 특별히 칼빈에 의해서 정립된 신학인 개혁주의 인간론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개혁주의는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절대적이고 유일한 권위로 삼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며,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신학이다(이상규, ). 개혁주의는 현재의 삶과 무관한 공허한 이념이나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 신학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사는 삶이며 이 땅의 삶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문화적 소명을 지니고 있음을 고백한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성장과 발전으로 인해 경영과 관련된 연구와 사회적 관심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영학은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김인수, 1998).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지금까지 경영학을 미시적이며 규범적인 수준에서 이해하였다는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즉, 그 동안의 경영학은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이윤 극대화라는 목적을 어떻게 충족시켜줄 것인가에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는 것이다. 그 결과 경영학은 지나치게 편협한 관점에서 방법론 중심의 학문으로 인식되어 버렸으며, 이러한 경영학으로는 오늘날 기업조직이 직면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뿐만 아니라 경영이론을 도입하여 문제해결을 하고자 하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에도 적절한 해결책은 제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영학이 직면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경영학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측면에 대한 비판과 논의를 통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만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영의 주체인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신앙이든 학문이든 그 본질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핵심이슈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된다. 왜냐하면, 신앙생활과 경영활동의 주체로서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신앙과 경영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방식인 패러다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경영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며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진리는 성격적 인간관에 입각해야만 한다는 것을 규명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경영 패러다임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인간론, 특히 개혁주의의 인간론을 바탕으로 논의한다. 둘째, 기존의 경영학에 대한 문제점과 그 원인을 인간관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셋째, 개혁주의 인간론의 경영학 적용을 통해 새로운 경영학의 패러다임의 가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 II. 개혁주의의 인간론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인간론의 핵심은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창조된 피조물인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죄를 범한 타락한 죄인으로 양면성을 가진 이중적 존재라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표현하는 것이며 동시에 피조물로서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죄인이라는 것은 인간의 곤궁의 실존적 상태를 의미하며 동시에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조차 대항하는 위대한 피조물임을 의미한다(Hoekema, 1986; 서창원, 2003). 본 연구에서는 개혁주의 인간론을 Hoekema(1986)의 『개혁주의 인간론(Created in God's Image)』과 김성수(2008)의 『그런 기독교는 없

습니다』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크게 두 가지,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격으로서 인간이라는 측면과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 1.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격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창 1:26-28).”

### 1.1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

개혁주의 신학에서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은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인간 이해의 가장 큰 특징적인 선언(Hoekema, 1986), 사람을 구별 짓는 특징적인 표지(Bavinck, 2006), 성경적 인간 이해의 핵심(Spykman, 2002), 사람의 본성을 모든 생물보다 뛰어나게 만드는 그의 탁월함(Calvin, 2006) 등으로 이해됨으로서 인간의 본질을 논의할 때 핵심적인 개념으로 등장한다.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다른 모든 피조물은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했는데,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 여기서 ‘형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צלם’은 ‘자르다’ ‘베다’ ‘조각하다’라는 뜻의 어근에서 파생된 말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투영하고 있음을, 즉 하나님의 표상을 뜻한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이다. 그리고 모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테무쓰’는 ‘무엇 무엇과 비슷하다’라는 뜻의 어근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자르고 베고 깎아서 하나님과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말이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어떤 특정한 유사점이 있는 하나님의 표상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다 만들고 심히 좋아하였다(창1:31).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인간이 처음에는 순결했으며 죄가 없었으며 거룩했었다는 말이다(Hoekema, 1986; 김성수, 2008).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이란 넓은 의미(구조적 측면)와 좁은 의미(기능적 측면)의 형상으로 나눌 수 있다(Berkhof, 1937; Berkouwer, 1962; Calvin, 1536). 넓고 포괄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과 그 존재가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하도록 하게하며 하나님의 소명에 반응해서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은사들과 재능들이 총체적으로 인간에게 부여된 상태를 넓은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서 인간의 이성적, 합리적 능력들은 하나님의 이성을 반영하고 있다. 인간의 도덕적 감수성도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반영시키고 있다. 인간이 사회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것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제를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가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뜻에 따라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결정 능력을 조금이나마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미적 감각 역시 저 절묘하고 웅대한 자연의 경관을 만들어 내신 하나님의 미적 감각을 닮은 것이다. 우리가 노래를 할 수 있는 재능도 역시 노래를 부르시며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을 닮은 덕택이다. 협의의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창조될 때 소유하게 된 영적인 특성들, 다시 말해 참된 지식, 의로움, 거룩함을 말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기능적 측면으로의 하나님의 형상이다(골3:10; 엡4:24)<sup>1)</sup>.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

복하게 되면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다. 이렇게 타락하기 전의 인간은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과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모두를 완벽하게 가지고 있었다.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닮아 있었다.

타락 이전의 아담과 하와의 흠 없는 상태는 완성과 변할 수 없는 완전한 상태가 아니었다. 인간은 분명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아직 완성품은 아니었다. 인간은 여전히 성장하고 검증받을 필요가 있었다. 하나님은 인간이 실제로 불순종의 가능성에 직면해서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자신에게 순종할지를 알아보고 싶으셨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의 시험적인 명령을 주셨다(Barvink, 2006).<sup>2)</sup> 아담과 하와가 그 명령을 지켰다면 인류의 이후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지 그 누가 알겠는가?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명령에 불순종했고 그로 인해 자신들과 그들 뒤에 올 인류를 죄의 상태에 빠뜨렸다(Hoekema, 1986). 그러면 인간이 타락하지 않고 본래적 형상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인간은 어떤 상태이었나?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을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셨던 피조 세계를 지배하고 돌보았다(김성수, 2008).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과 피할 수 없는 관계성 속에 놓여있는 존재라고 설명한다. 즉,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탄생되었으나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다(창1:1; 창1:27)<sup>3)</sup>. 그리고 그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께 의존해 있고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느9:6)<sup>4)</sup>. 또 하나님은,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시며, 그들이 사는 시대와 거주를 정하셨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지만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는다(김성수, 2008).

인간이 창조된 인격적 존재(man as a created person)라는 정의 속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첫째 인간은 창조된 피조물로서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다는 것이다. 둘째, 그는 인격적 존재이므로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삶을 형성해 나가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책임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 즉, 인간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존재 자체가 의존되어 있는 피조물이면서, 그 분 앞에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할 역설(paradox)적 존재라는 것이다(Hoekema, 1986).

## 1.2 삼중적 관계의 인간

하나님은 인간을 삼중적 관계, 즉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인간과 동료의 관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속에 두셨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 주심,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명령에 대한 언

- 
- 1)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골 3:10)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엡4:24)
  - 2)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창2:16-17)
  - 3)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1:1).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1:27)
  - 4)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느9:6)

급들은 인간이 속해 있는 일차적 관계, 즉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나타낸다. 인간과 동료 인간과의 관계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는 말씀에 나타나 있다. 또 우리와 자연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에 대한 지배권을 주시는 것에 암시되어 있다(Hoekema, 1986).

첫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이다.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 덕분에 존재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며 일차적으로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피조물이다.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관계이다. 인간의 다른 모든 관계는 이 관계의 지배와 통제를 받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러므로 가장 참된 의미에서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다른 무엇보다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뜻한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일차적인 관계이므로 인간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면전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Hoekema, 1986).

인간과 하나님의 이런 수직적 관계는 기독교적 인간론의 기초이며 이런 관계를 부정하는 모든 인간론은 비기독교적일 뿐만 아니라 반기독교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창조교리에서 출발하지 않고 그 결과 인간을 전적으로 하나님이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와 관계없이 참되고 올바른 것에 도달할 수 있는 자율적 존재로 간주하는 인간에 대한 모든 관점은 거짓으로 여겨 배격해야 한다. 이는 더 나아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음을 뜻한다. 인간은 자기의식과 자기 결정이 가능하고 따라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 응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의 자아, 하나의 인격체로서 창조되었다. 이는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대해서도 함의를 갖는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인간이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고 그래서 자신의 모든 힘과 재능과 능력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Hoekema, 1986).

둘째, 인간과 동료 인간과의 관계이다.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동료 인간들을 향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인간은 스스로 완전한,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타인과의 교제가 필요하고 타인을 떠나서는 완전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이다. 하와의 창조를 묘사한 창세기 2장에서 ‘돕는 배필’은 그에게 상응하는 배필을 뜻하는 것으로 여자가 남자를 보완해 주고 보충해주며 완전하게 해 주고 남자가 약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강하고 남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남자의 필요를 충족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자는 여자 없이는 불완전하다. 이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여자도 남자 없이는 불완전하다. 남자는 여자를 보완해 주고 보충해 주며 여자의 필요를 채워 주고 여자가 약한 부분에서 강하다(Hoekema, 1986).

여기서 말하는 남녀 관계는 인간 상호 간의 교제의 필요성을 함축한다. 그러나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말하는 관계는 일반적으로 우리와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함의를 갖는다. 남자는 여자 없이는 불완전하고 여자는 남자 없이는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남자는 다른 남자들 없이는 불완전하고 여자도 다른 여자들 없이는 불완전하다. 남자와 여자는 혼자서는 참된 인간성에 도달할 수 없다. 인간에게는 타인과의 교제와 타인의 격려가 필요하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다. 성경이 인간에게 그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한다는 사실 자체가 인간에게는 이웃이 필요함을 의미한다(Hoekema, 1986).

인간은 타인을 떠나서는 참된 인간이 될 수 없다. 우리는 동료 인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다른 측면에서도 사실이다. 우리는 타인과의 접촉을 통해서만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우리는 타인과 교제 속에서만 성장하고 성숙한다.

또한 우리는 타인과 협력 관계 속에서만 우리의 잠재력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 우리는 서로를 풍요롭게 한다. 인간에게 있어서 타인과의 관계성은 모든 인간이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자기 확대 수단이 아닌 타인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간주해야 함을 뜻한다.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며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고 그들의 짐을 지고 그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열망해야 함을 뜻한다. 모든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속하며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뜻한다. 인간이 타인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 인간다움의 본질적인 측면임을 뜻한다(Hoekema, 1986).

셋째, 인간과 자연의 관계이다.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자연을 다스리는 것이다. 성경은 인간을 자연에 대한 지배권을 가진 존재로 묘사한다(창1:26-28). 인간은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지배권을 받았다. 인간의 땅에 대한 지배권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한 본질적인 측면이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를 다스리는 분으로 계시된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 묘사된다. 그러므로 땅에 대한 지배권을 가졌다는 것은 인간의 존재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다.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묘사하기 위해 정복하라와 다스리라는 두 단어가 사용된다. 정복하라는 동사는 우리에게 인간은 땅의 자원들을 탐험하고 땅을 경작하며 묻혀 있는 보물들을 캐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땅과 식물과 동물에 대해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인간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그 존재가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한 측면이라는 점에 있어서 생각해야 한다. 인간은 자연과 인류 전체에서 발견되는 모든 가능성을 개발하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종종 문화 명령이라 일컬어지는 것,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문화를 발전시키라는 명령이 나타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의 일부로 등장하지만 그 복은 일종의 명령을 함축한다(Hoekema, 1986).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또 다른 단어인 다스리라는 구체적으로 인류가 짐승에 대해 지배권을 가질 것이라고 말한다(창2:9; 시8:5-6). 그러나 인간과 자연의 적절한 관계는 단지 자연을 다스리는 관계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임무를 줄 때, 그 임무는 에덴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일이었다. 여기서 경작하라는 단어는 섬기라는 뜻이며 지키라는 단어는 지키다, 감시하다, 보존하다, 섬기다는 뜻이다. 다시말해 아담은 자연을 다스리라는 명령만을 들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위치해 있는 땅의 일부를 경작하고 돌보라는 명령도 들었다. 인간은 하나님 아래 서 있으면서 자연의 통치자,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자연의 비밀을 발견하며 자연의 자원들을 탐험하도록 부르심을 받을 자로서 자연 위에 서 있다. 그러나 인간은 자연을 다스리되 또한 자연을 섬기는 자가 되도록 다스려야 한다.(Hoekema, 1986)

하나님은 인간을 이 세 가지 관계 모두 안에 두셨다. 각각의 관계는 나머지 두 관계에 못지않게 중요하고 필수불가결하다. 우리는 그중에 어느 하나만 없어도 제대로 존재하거나 제 역할을 다 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이 세 관계는 서로 관련되어 있다. 우리는 다른 어떤 피조물도 이러한 삼중적 관계 속에서 살지는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또한 이 세 가지 관계는 각각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 삼중적 관계는 인간에게만 있는 독특한 관계이며 인간은 이 세 관계 각각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므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의 올바른 기능은 하나님, 이웃, 자연과의 관계라는 이 세 가지 관계를 통해 발휘되어야 한다(Hoekema, 1986).

## 2.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창3:1-7)”

### 2.1 죄의 기원

죄는 어떻게 인간에게 들어와서 인간을 타락시켰는가? 타락한 천사가 내려와서 인간을 미혹했다.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sup>5)</sup>. 그리고 천사들은 아마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창조가 되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번역된 말이 천사를 가리키는 단어이다. 그런데 그 천사들의 우두머리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타락을 했다<sup>6)</sup>. 그 천사들이 어떻게 타락을 하게 되었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다. 그러나 타락한 천사가 내려와서 화화를 유혹한 것은 사실이다. 그 타락한 천사인 마귀는 뱀을 이용해서 화화를 유혹했다. 마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고 들어온 것이다. 하나님은 아담을 세우시고 화화를 돕는 배필로 주었고 그 아래 피조물들을 놓았다(김성수, 2008).

그런데 피조물 중 하나인 뱀이 와서 화화를 유혹한다. 화화는 아담을 유혹하고 아담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마귀는 먼저 인간의 마음에 의심을 불어일으킴으로 인간에게 분노가 생겨나도록 한다<sup>7)</sup>.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나무를 만져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하와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지금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부당한 제한으로 여기고 있는 일에 대해 분노를 느끼기 시작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의심과 분노는 곧 불신으로 이어졌으며 다음으로 뱀은 교만을 부추겼다. 그리고 여자는 그 나무를 유심히 쳐다보자 악한 욕망이 일어났으며 마지막으로 노골적인 불순종으로 이어졌다(Hoekema, 1986).

아담과 하와의 첫 불순종의 결과는 수치심이었다. 수치심은 죄책감을 느끼는 양심의 직접적인 반응이었다. 수치심이 유독 생식 기관으로 특징지어지는 몸의 일부에 집중된 것은 생식기관은 생명이 잉태되는 인간 삶의 근본적인 샘과 원천이기 때문이다. 이제 죄로 인해 인간의 근본적인 원천이요 샘이 완

5)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골1:16)

6)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 하였었느니라(욥38:4-7)

7)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창3:1-7)

전히 오염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총체적 타락입니다. 그 죄의 결과 여전히 우리는 그 곳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이다. 수치심 다음에 오는 결과는 두려움이었다<sup>8)</sup>. 그리고 인간들은 곧 책임 회피를 했다. 아담은 하와가 먹으라고 했다고 핑계를 댔다. 하와는 뱀이 먹으라고 했다고 핑계를 댔다. 아담은 에덴을 지켜야 하는 왕이요 제사장이었다. 그는 하와의 죄를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자였다. 그런데 아담은 하와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

나중에 신약에서 또 다른 동산지기가 와서 그 아담의 실패를 회복한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을 때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그 뒤에 서있으니까 마리아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고 하는 대목이 나오지요? 일부러 ‘동산지기’라는 말을 갖다 넣은 것은 에덴 동산지기가 실패한 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회복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죽어야 할 마리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그 동산에서 읽을 수 있다. 두 번째 아담은 그렇게 성공을 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곧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을 준다<sup>9)</sup>.

## 2.2 죄의 본질

인간의 죄는 모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김성수, 1986).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한다<sup>10)</sup>. 이 말은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다. 인간이 창조되기 전 세상은 이미 ‘우주의 환란’(cosmic trouble)이 있었다. 마귀의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선 것이다. 마귀는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지어진 아름다운 천사이었다<sup>11)</sup>. 그런데 그가 반역을 했으며 불순종한 것이다<sup>12)</sup>. 그 악한 천사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 인간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이다. 그로부터 인간들이 “내가 무엇 무엇을 하리라.” 하고 교만과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된다. 성경에서는 종종 인간들을 향하여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데 인간은 분을 내고 화가 나면 목부터 뻗뻗해 진다.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목을 뻗뻗이 쳐들고 대들뿐 아니라 독기를 품고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번은 “우리는 하나님

8)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창3:10)

9)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창3:15-16)

10)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시51:4)

11)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13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음이여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겔28:12-15).

12)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렁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사14:12-15).

과 내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이다<sup>13)</sup>. 이렇게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단순히 그런 행위 뿐 아니라 실행은 되지 않았지만 마음에서 올라오는 모든 악한 생각도 죄이다. 의지 그 자체가 죄의 첫 원인이다<sup>14)</sup>. 이렇게 죄는 행실뿐 아니라 생각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모든 행위들과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도 선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가? 여기서 또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발견한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것을 남겨 두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도 그 양심이 율법이 되어 자제를 하게 만들었다<sup>15)</sup>.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사회법과 지도자들을 두어서 죄를 억제시킨다. 사회법이 없고 양심이 없다면 이 세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면 죽여서 갖다 물어버리고 싶은 게 인간 아닌가? 그나마 법이 있으니까 무서워서 안 저지르는 것,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아직 우주와 함께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회개할 때까지만 보존한다<sup>16)</sup>. 그 때까지는 일반은총으로 죄를 억제해 놓으시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불들과 계신 끝을 탁 놓아버리실 것이다. 그러므로 죄인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관점에서의 선한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죄인들은 선한 일을 할 때도 자기를 위해 선한 일을 하기로 선택을 한다. 죄인들이 가끔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저렇게 선한 일 할 수 있을까 하고 반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진정으로 남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상실해 버렸다. 타락한 인간은 죄의 종이기 때문이다<sup>17)</sup>. 여기서 ‘죄의 종’이라는 말 ‘들로스’는 ‘노예’라는 뜻이다. 항상 주인인 죄가 시키는 대로 따라 하면서 사는 자들을 죄의 종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행위, 선하게 보

13)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롬8:7)

14)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꾀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 하느니라(마15:18-20)

15)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롬2:14-15)

16)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 하시느니라(벴후3:7-9)

17)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벴후2:19).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요8:34).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롬6:6,17,19,20)

이는 행위를 포함해서 모든 행위는 죄이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은 자기중심적이 되어서 자기만을 사랑하게 된다. 자기만을 사랑하느라 하나님을 사랑치 않고, 이웃을 사랑치 않고, 자연을 사랑치 않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를 위해서 이용을 하고 착취를 하게 되어버린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죄의 경중을 말한다. “나는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니 살인한 자보다는 좀 낫다.”, “나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으니 도둑질 한 사람보다는 좀 낫다.” 그렇게 스스로 위로한다. 정말 그런가? 하나님의 거룩의 높이에서 보면 다 똑같은 죄이다. “불순종의 죄” 심지어 성경은 인간이 최고의 선을 행한다고 해도 그것도 죄라고 한다<sup>18)</sup>.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것은 더러운 걸레 같은 것이다. 모두 자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꼭 법을 어기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만을 죄라고 생각한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충분히 자연과 인간의 마음에 당신을 계시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인간에게 주었다. 자연을 통해서 인간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감히 인간이 만들어 놓은 색깔로 표현할 수 없는 온갖 꽃들과 새들과 물고기들과 아름다운 자연의 정경이라든가 매일같이 어김없이 뜨고 지는 해와 일정한 모양으로 변해 가는 달과 사계절을 보면서 어떻게 창조주를 모를 수 있을까? 인간의 몸 안에 들어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들이 그렇게 자기 역할을 따라 수 천 가지의 일을 해 내면서 우리 몸이 살아있게 되고 자체적인 방어능력과 면역능력을 갖게 되었다. 그 모든 자연과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흔적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인간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담 때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sup>19)</sup>.

로마서와 사도행전이 쓰인 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 성경이 지금의 신구약으로 편집이 된 것은 AD 400년경이다. 그 당시는 구약 성경도 아주 희귀하던 때이며 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다.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두셨다.” 그래서 그 때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사람만 보지 못한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아름다움과 선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흔적이다<sup>20)</sup>.

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이라는 것은 먼지 같은 작은 죄도 용납이 안 되는 상태이다. 이렇게 우리는 핑계 댈 수 없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다. 진노라는 것은 분냄이 아니다. 우리가 분을 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상해서 나오는 것이지

18)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패함이 있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사64:6).

19) 하나님을 알 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없는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롬1:19-21).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이 각자의 방법대로 살게 내버려두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행14:16-17).

20)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딤후4:4)

만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상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와는 아무 상관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분의 공의로 죄를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속성을 진노라고 한다. 우리의 분노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 하나님의 진노는 무시무시한 것이었다. 오죽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기도를 하시는데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피해갔으면 좋겠다고 하실 정도로 무시무시한 것이다. 그 진노가 모든 죄인들을 덮고 있다.

죄의 본질적 성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Hoekema, 1986). 첫째, 죄는 어떤 독립된 존재가 없다. 죄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을 반영하는 능력을 왜곡되게 사용하는 한 가지 방식이다. 죄는 창조 이후에 온 것이고 존재하는 것이 흉하게 변한 것이고, 선의 결핍이상이며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반역이다. 둘째, 죄는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관계된다.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증오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대적이자 반역이다. 셋째, 죄의 원천은 성경이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에 있다. 여기서 마음은 내적인 인격을 묘사하는 것으로 사고, 감정, 의지의 기관, 우리의 모든 기능이 집중되는 곳을 말한다. 다섯째, 죄는 행위뿐만 아니라 생각도 포함한다. 생각도 말이나 행동만큼이나 죄악적일 수 있다는 것은 탐욕을 금하는 열 번째 계명에서 명백하다. 여섯째, 죄는 죄책과 오염을 다 포함한다. 일곱째, 죄의 뿌리는 일종의 교만이다. 죄란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 있음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우리 스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덟째, 죄는 보통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 죄는 우리 삶에 만연한 한 측면이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자주 인식하지 못한다.

### 2.3 타락한 인간

인간이 죄에 빠진 뒤에 하나님의 형상은 멸절된 것이 아니라 비뚤어졌다. 구조적 의미에서의 형상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인간은 이제 이 재능들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방식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변한 것은 인간의 구조가 아니라 인간이 기능하는 방식, 인간이 가고 있는 방향이었다.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 구속받을 수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을 드러낼 수 없는 마귀가 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인간은 실제로, 본질적으로 여전히 인간이었고 여전히 그의 모든 인간적인 기능과 능력과 힘을 보전했지만 이 모든 능력은 그 형태와 본질과 성향과 방향이 너무 크게 바뀐 나머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대신 육신의 법을 이룬다. 타락 때문에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되지는 않았지만 심각하게 부패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 인간에게 주어져 있던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이제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오히려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자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땅을 보존시키실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다시 하시고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타락한 이후의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이다<sup>21)</sup>.

사람들이 세치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sup>22)</sup>. 여기서 지음을 받았다는 말 ‘게고노타스’는 “만들어지다.”라는 말인데 ‘기노마이’의 완료분사이다. 헬라어에서 완료 시제는

21)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창9:6)

22)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약3:8-9).

계속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과거의 행동을 묘사할 때 사용된다. 그러므로 본문이 말하는 사람은 과거의 언젠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며 그리고 아직도 그 형상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라는 뜻이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으며 타락한 이후에 그 형상은 완전히 부패되어 거의 소멸된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계속 존재하며 또 어떤 부분이 부패되거나 상실된 것인가? 타락을 한 인간은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지만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즉 기능적 측면의 하나님의 형상은 상실하게 되었다. 바꿔 말하면 타락한 인간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하신 재능과 능력들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 재능과 능력들을 죄악의 불순종의 방법들로 사용이 되게 되어 버렸다.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주어진 재능과 능력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데 쓰이게 된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과 은사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던 의와 거룩과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과 인간 서로와 피조 세계와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able to sin)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인간은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 그래서 인간은 변질된 형상을 갖게 되어버린 것이다. 인간에게 주어진 광의의 하나님의 형상, 즉 인간의 재능이나 역량, 은사들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형상들이 다른 방향으로 쓰이게 된 것이다. 첫째, 하나님을 향해 순종과 경배를 드려야 했던 인간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 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롬 1:22-23). 옛날 사람들은 나무와 돌로 우상을 만든 반면, 현대인들은 그들이 경배할 그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옛날보다 훨씬 미묘한 형태로 우상, 예를 들면 자기 자신, 돈, 명예, 자식, 쾌락 등을 만들고 있다. 둘째, 하나님의 형상의 변질은 인간과의 관계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타락한 인간은 교제를 통해 타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다른 이들을 이용하고 밟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 되었다. 남이 잘되면 배가 아픈 치졸한 인간들이 되었다. 셋째,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 속에서 땅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땅을 착취하게 되었다. 왕으로서 피조 세계를 보살피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 피조 세계를 죽이게 되었다.

한편이 된 뱀과 여자를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인간을 하나님 편으로 만드시겠다는 말이다. 그리고 여자에게도 저주를 한다. 여기서 여자가 남자를 사모하게 된다는 말은 ‘태슈카’인데, 그 말은 ‘지배하다’라는 말이다<sup>23)</sup>. 타락한 인간은 이제 다투지 않고는 안 되는 사이가 되어버렸다. 여자는 남자를 지배하려고 들게 되었다.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다. 그런데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려 한다. 따라서 늘 부딪치게 되어있다. 그리고 또 자연이 저주를 받는다<sup>24)</sup>. 이제 인간은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겨우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어버렸고 땅은 수고한 만큼의 결실을 주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어 버렸다.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저주는 이제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가 끊어져 버린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고 한다<sup>25)</sup>. 언뜻 보면 좋은 말 같다. 인간이 정말 사탄

23)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었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창4:7)

24)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창3:17)

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인가?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말은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옳다고 하고 하나님이 그르다고 하는 것을 그르다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어있었는데 이제 인간이 하나님처럼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옳다고 결정을 내리고 스스로가 그르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르다고 판단을 하는 이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공휼을 잊지 않는다. 인간이 만약 그 죄에 찢긴 몸으로 생명나무 과실을 먹었다면 그 저주의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 생명나무를 막아버리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구원을 받아 영광스러운 새 몸을 얻을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죄는 보편화 되어버렸다. 아담의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다. 그 죄는 점점 퍼져서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은 이미 그 죄가 세상에 관영함을 보셨다<sup>25)</sup>. 아담이 지은 죄 때문이다. 아담이라는 히브리어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뜻한다. 남녀 구별 없이 그냥 사람이라고 할 때 ‘아담’이라는 말을 쓴다. 그런데 이 ‘아담’이라는 단어는 종종 ‘인류’를 가리킬 때도 쓰인다. 그런 면에서 남자와 여자를 즉,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전 인류를 대표하는 자로서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전 인류가 그로부터 나오게 되고 아담이 앞으로 오게 될 전 인류의 머리로 대표자인 것이다.

성경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 즉 두 번째 아담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첫 번째 아담도 예수 그리스도와 유사한 관계로 우리를 향해 서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sup>27)</sup>.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처럼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 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롬5:14).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 오다가 살렘 왕 벨기세렉을 만나, 그에게 자기가 취한 것의 십 분의 일을 준다<sup>28)</sup>. 레위는 그로부터 180년 후에 태어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런데 그 레위가 아브라함이 십분의 일을 바칠 때 그 아브라함 안에서 함께 바쳤다는 것

25)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창3:22)

26)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창6:5).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 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시매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근을 물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왕상8:46).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요14:3).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음이며 나면서부터 결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시58:3).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시143:2).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뇨(잠20:9).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전7:20).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3:23).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엡2:3).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 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요일1:8-10)

27)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전15:22) 기록된바 첫 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고전15:45)

28) 또한 십분의 일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십분의 일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10이는 벨기세렉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히7:9)

이다. 바로 이런 원리로 우리는 그렇게 아담 안에서 죄를 지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 무능력자들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이제 살아날 수가 없게 되어 버렸다<sup>29)</sup>.

### 3.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할 수 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그 분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 완성시키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인간은 본질상 죄인으로 그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내용이 핵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소유하신 어떤 분을 올바르게 파악하면 될 것이다<sup>30)</sup>. 여기서 본체의 형상이라고 번역된 ‘카락테르’는 동전 같은 것을 ‘똑같이 찍어내다’라는 의미로 정확한 형상(exact representation)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서 완전하고 정확하게 복사해 내신 분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부에는 무엇이 있었는가를 알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삶의 중심부는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빼어 닮은 형상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의 심장은 바로 사랑인 것이다. 불순종, 시기, 질투, 교만이 하나님의 형상의 왜곡의 열매라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다<sup>31)</sup>. 바로 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진,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으

29)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3:3,5).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요6:44).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롬8:7-8).

30)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골1:15).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취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고후4:4)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1:3)

31)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롬13:10)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갈5:14)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엡5:1-2).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로 인하여 부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는 그 형상의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sup>32)</sup>.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미리 사랑하신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왜 택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원상 복구해 놓으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들은 당연히 사랑하는 자들로 회복되어 가게 되어 있다<sup>33)</sup>.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구속의 목표는 사랑이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닮아 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이다. 인간은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인격체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피조물로 지으셨지만 인격체로 대우하고 계신다. 성경을 주시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것이다. 인격체라 함은 일종의 독립성을 지닌 존재, 결단력을 지니며, 목적을 세우며 그 목적을 향하여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이다. 즉 인격체는 적어도 자신의 선택에 대한 자유를 소유한다는 것,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 '선택권을 소유한 피조물'(creature of option)이라고 한다. 즉, 인간은 피조물인 동시에 하나의 인격체, 곧 피조된 인격체(created person)인 것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이며 신비다. 즉 피조물인 인간은 종속(dependence)되어진 존재이며, 인격체인 인간은 자유로운(freedom) 존재이다<sup>34)</sup>.

그러므로 사람의 피조성과 인격성은 반드시 균형 속에서 살펴져야 한다. 만일 우리가 인간의 피조성만을 강조하고 인격성을 무시하다보면 우리는 자칫하면 숙명론(determinism)에 빠지게 되고 피조성을 무시하고 인격성만 강조하다보면 사람 자체가 신성화 되게 되는 이단을 낳게 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죄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벌을 받게 된 것이다. 인간에게 이 인격성이 갖고 있는 자유가 없었다면 인간은 벌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을 의지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피조물이다. 그런데 동시에 사람이 인격체라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그 인격체가 할 역할이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한데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시작된 구원이 가시적으로 완성될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다. 성경은 절대 인간적인 책임을 면제해 주지 않는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성령의 힘을 입어 눈을 뜨게 되지만 그는 자발적으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다<sup>35)</sup>. 분명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막12:29-33)

32)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미리 사랑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롬8:29)

33)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갈4:19).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반사하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후3:18)

34)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롬9:21).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24:15)

35)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빌2:12-13>

구원을 이루라고 요구해 놓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한다. 구원을 이루라에서 ‘이루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테르 가제스테’이다. 그 말은 농부가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는 데 쓰이는 말이다. 즉,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것을 너희가 자라게 하라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다 하는데 우리의 노력이 없이는 일 하시지 않는다.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하게 새롭게 회복된다는 것이다<sup>36)</sup>. 그런데 ‘벗어버리고’의 ‘아페크 두사메노이’와 ‘입었으니’의 ‘엔 두사메노이’는 모두 부정시제이다. 부정시제라는 것은 순간적인 단번에 일어난 일을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하심’이라고 번역된 ‘아나카이 누메논’은 현재분사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일어난 것인데, 새롭게 되는 일은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속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새로운 자아가 점차적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한다. 우리는 이미 완전히 거룩한 자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다 자각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하나 보여준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다. 그런데 22장에서 또 축복한다. 그리고 그 축복의 이유를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여서”라고 한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축복은 이미 주어진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 축복을 받을만한 자로 만들어져 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행위를 근거로 축복한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다.

#### 4. 개혁주의의 인간론의 요약

개혁주의 신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Calvin(1536)은 『기독교강요』에서 인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실한 지식에 도달하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 모두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포착해야 한다(창1:26-27). 말하자면, 그는 지혜와 의와 거룩함을 부여받았으며 이 은혜의 선물에 의하여 하나님께 너무나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의로움 속에 굳게 서 있었다라면 영원히 그 분 안에서 살 수도 있었으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담이 실족하여 죄를 범했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은 취소되고 지워졌다. 그것이 있었다면 그는 생명의 길로 재인도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옮겨져 완전한 이방인이 되어버렸다. 그 결과 인간은 모든 지혜, 의, 능력, 생명을 박탈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무지, 죄, 무능, 죽음 그리고 심판 외에는 아무것도 그에게 남아있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롬5:12-21). 이것들이야 말로 죄의 열매들인 것이다(갈5:19-21). 이러한 재앙은 아담에게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씨의 자손인 우리에게도 흘러내리게 된 것이다.

따라서 아담에게 난 우리 모두는 무지하며 하나님에게서 떨어졌으며 사악하며 부패했으며 모든 선을 결하고 있는 것이다. 특별히 모든 종류의 사악함에 이끌리며 부패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것들에 중독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완고한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렐17:9). 그러나 만일 우리가 겉으로는 어떠한 선한 일을 한다할지라도 마음은 여전히 오염되고 왜곡된 내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사실 혹은 모든 사람의 최대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인데 그는 외모에 따라

36)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골3:9-10>

판단하지 않으시고 외적 위용을 높이 평가하지 않으시며 마음의 비밀을 감찰하신다(삼상16:7; 렘17:10). 그러므로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외적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위선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며, 심지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기까지 한 것인데 그것은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의 생각이 그 아래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받으실만한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그분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을 행해야만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그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 봉사하고 그 계명에 순종해야만 한다. 우리에게 능력은 없으며 파산한 빗쟁이처럼 빚을 갚을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변명할 수도 없다. 왜냐면 우리를 묶는 죄책은 우리 자신의 것이며 우리 자신의 죄로부터 생겨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나 능력을 앗아가 버리기 때문이다(요3:34-38; 롬7:15-25). 이제 하나님께서는 공의대로 죄를 벌하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를 받아야 하며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사실상 우리 가운데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개혁주의 신학의 인간에 대한 논의를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창조된 피조물인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죄를 범한 타락한 죄인으로 양면성을 가진 이중적 존재라는 것이다(Hoekema, 1986; 서창원, 2003).

개혁주의 인간	본질(nature, essence)	존재(being, existence)			
	형상	상태	관계	목적(이유)	삶
창조	하나님의 형상 : 선함	좋았더라(토브) 구조/기능 측면 존재	하나님: 전적의존 사람: 협력 자연: 다스림(보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분을 즐거워 함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로 관계(교제)함
타락	변질된 형상 : 악함	혼란(코스모스), 불순종 구조 측면 유지/기능 측면 상실	하나님 : 단절, 우상숭배 사람: 원수 자연: 파괴	죄인의 인식	율법의 삶
구원 회복	회복된(참된) 형상	구원(예수아, 소테리아) 구조측면 유지, 성령으로 기능측면 회복	하나님: 전적의존 사람: 협력 자연: 보호	진리로 자유를 얻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즐거워함 (그리스도의 삶)	삼위하나님으로부터 이끄는 삶(그리스도의 삶)
영원 완성	완성된 형상	심판/영벌 혹은 영생			

<표 1> 개혁주의 인간론의 요약

### Ⅲ. 경영학의 인간론

경영학이란 기업조직에서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활동들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원칙을 규명하는 학문이다. 기업의 성장과 발전으로 인해 경영학에 대한 학문적이고 사회적인 관심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김인수, 1998). 그 주요 원인은 지금까지 경영학을 미시적이며 규범적인 수준에서 이해하여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이윤 극대화라는 목적을 어떻게 충족시켜줄 것인가에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져 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경영학은 편협한 관점에서 방법론 중심의 학문으로 인식되어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에 직면한 오늘날의 조직에 적절한 해결 대안을 제시하는데 한계를 직면하고 있다. 학문적인 측면과 실무적인 측면에서 경영학의 질적인 확장 및 발전은 경영학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측면에 대한 비판과 논의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경영학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측면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경영의 주체로서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인간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조은상(2001)의 연구를 바탕으로 경영학은 역사적 흐름 가운데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개괄적으로 고찰한다.

#### 1. 고전적 접근의 인간관

경영학에서 고전학파는 19세기 후반부터 1930 초반에 활동하였으며 두 가지 근원을 갖고 있다. 첫 번째는 Herbert Spencer 철학을 기초로 하여 성립된 사회적 다윈주의로서 고전학파에 중요한 가정을 제공하였다. 이에 의하면 인간은 적자생존의 법칙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부조리한 운명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은 인류의 자연적 진화과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다른 흐름은 인간 본성에 대한 엄밀적인 관점을 첨가한 Taylor의 과학적 관리법이라고 할 수 있다.

1900년대 초 기계에 의한 생산방법과 대량생산 방식의 도입으로 숙련노동 시스템이 해체되었다. 또한 노동자계층이 숙련, 반숙련 및 비숙련으로 분화되어 그 구성이 복잡해지면서 숙련 및 도제제도가 해체되었고 현장관리의 운영방식이었던 내부 청부제가 붕괴되었다. 그 결과 작업능률이 급격하게 떨어짐으로써 기업의 생산현장에서는 능률 증진 운동과 과업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작업공정의 세분화, 과업표준, 원가계산의 확립, 하위관리자의 업적평가, 직장(職長)과 직공간의 의사소통 원활화 등이 도입되었다. 이 시기의 인사관리는 노동자를 요소 비용적 절약의 대상으로 노동자를 취급하였고 인사관리의 초점은 임금 및 노무비용의 절약에 초점이 이루어졌다.

Taylor의 과학적 경영, Fayol의 관리적 경영 및 Weber의 관료적 경영을 포함한 고전적 접근 방법은 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관리자의 역할을 보다 정확하게 정의함으로써 생산성의 급격한 향상을 가져왔다. 고전적 접근방법에서는 위계제도에서의 관리자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관료적 경영하에서 관리자는 지위가 높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부하들이 명령에 복종을 할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관리적 경영 및 과학적 경영하에서 강조되는 논리적인 과정 및 엄격한 노동의 분화 역시 이와 유사한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고전학파에서는 사람들은 감정이 있고 동료들의 영향을 받는다고 인정하고 있었지만 주된 강조점은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직무를 실행하는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Taylor는 노동자와 관리자간의 나쁜 감정을 제거하고 종업원들에게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노동의 인간적

인 측면을 고려하였다. 고용주의 입장에서 본직업의 보장, 경력의 진전, 노동자의 보호가 고전주의자들에게 중요시되었다. 하지만 이 접근방법은 인간 변수를 적절하게 강조하지 않았다. 즉, 조직내의 갈등, 의사소통, 리더십 및 동기 등이 고전이론에서는 적절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고전학파에서 상정하는 관리의 대상으로서의 인간관은 한마디로 나사못을 박는 등의 매우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을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매우 수동적인 인간, 스스로 사고 활동이나 대화, 창의력, 상상력의 틈이 전혀 없는,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로봇 내지 대형 시스템의 톱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인간형이다. 이에 반하여 관리자로서의 인간형은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하고 권위나 돈, 위계제도 등과 같은 조직의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종업원을 통제하고 군림하는 역할로서의 인간형이 드러난다. 한마디로 말하면 종업원이든 관리자는 경제적 인간으로서 개인의 경제적 욕구충족을 극대화시키려는 이기적 동기에서 행동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 2. 인간관계 접근의 인간관

인간관계학파가 등장하게 된 시대적 배경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능률증진운동과 과학적 관리론으로 대표되는 전통적 접근에서 제기된 인간=기계 부속품으로 대표되는 인간 노동의 소외, 단순 반복적 작업으로 인한 근로의욕의 저하 문제이며 두 번째는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산업의 유흥없는 변형 및 산업 규모의 확대에 소유와 경영이 분리하게 되었고 이로써 전문경영인이 나타나 경영인의 능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인간관계론적 접근의 학문적인 업적은 인간을 직장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생산 수단 이상의 사회인(social person)으로 봄으로써 인간 중시현상을 최초로 제시한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시카고 교외 서부전기주식회사의 호손 공장 실험결과 능률은 물리적 조건의 변화에 의하여 능률 향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 감정적 요인들, 즉 우호적인 동료관계, 횡적인 인간관계, 직무 및 조직의 목표에 대한 이해, 책임감 및 사회적 승인, 협력의욕의 진작, 감독자와의 호의적인 종적 관계 등이 능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달리 말하자면, 생산성의 변화는 환경적 조건의 변화보다는 종업원들이 어떻게 대우받느냐 하는가에 더 크게 반응을 한다는 것이다. 즉, 지원적 감독자(supportive supervisor)와 마음이 맞는 작업집단의 종업원들은 높은 생산성을 유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처럼 Mayo의 인간관계론은 인간이 고립적 개인이 아니고 오히려 협동적 개인이라는 인간관을 기초로 하고 있다. 즉, 인간이 조직 사회를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효율, 능률 및 비용에 입각한 기술적 기능(technical skill)과 더불어 조직구성원의 자발적 노동관계를 창조하고 직무완수를 위한 협동을 촉진시키는 사회적 기능(social skill)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간관계학파는 전통적 접근은 인간의 기술기능에 치중한 결과 사회적기능을 무시함으로써 불균형을 야기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불균형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인간 중시를 통한 인간 관계론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간 관계론은 조직 계층 및 과정연구를 통하여 작업공정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집단중심의 노동형태의 변화를 유도하면서 초기 인사관리의 내용인 직무분석, 직무평가 및 인사고과의 내용을 체계화하기에 이르렀다.

인간관계학파의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인간은 노동을 제공하는 생산수단, 경제적 의미의 인간만이 아닌 조직구성원 상호간의 유기적 관계가 있는 사회인이라는 협동적 개인을 인간관으로 하고 있다. 나아가, 종업원은 경제적 동기에 좌우되기보다는 사회적인 필요에 의하

여 동기부여를 받고 상호 연관을 통하여 동질성(a sense of identity)을 가진다. 특히 종업원은 경영진이 제공하는 인센티브나 규정보다 동료들이 행사하는 사회적인 힘에 잘 반응한다. 종업원은 자신들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경영진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관리자들은 조직의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종업원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인적자원학파가 나오기 전에는 인간관계론 및 행동과학이 선행적으로 학문의 체계를 갖추었으므로 학제적 접근(interdisciplinary)이 가능하게 되었다.

### 3. 인적자원접근의 인간관

1940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Argyris, Maslow, McGregor 및 Herzberg 등의 이론, 행동과학 및 학제적 연구를 통하여 공동의 특성을 갖는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를 인적자원학파라고 지칭한다. 이 학파는 인간관계학파가 더 이상 작업장에 유용하지 않은 1957년 이래의 경제침체에 더욱 중요성을 띠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인적자원학파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적자원 이론의 틀을 세운 사람은 Ginzberg(1958)로서 생산 과정에 있어서 토지, 노동, 자본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토론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노력과 창의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운동의 잘 알려진 기여자 중의 한 사람인 Maslow는 욕구단계이론에서 관리자들이 조직원들의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사회적 욕구, 자기 충족적 욕구 및 자기 성취적 욕구를 이해해야 한다고 믿었다.

Herzberg는 2요인 이론에서 임금, 직업 보장, 노동 조건 등을 포함하는 위생요인(hygiene factor) 및 성취감, 인정 및 개인적 성장을 내포하는 동기요인(motivating factor)에 대하여 설명하며 종업원들은 위생요인이 충족될 때 동기요인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McGregor는 X, Y이론을 제시하였는데, X이론에 의하면 종업원은 일을 싫어하고 감독을 원하는 반면, Y이론에 의하면 종업원은 일하기를 좋아하며 기업의 목표에 몰입하는 종업원은 자기 조정 및 자기 통제를 원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의 연장선에서 McGregor는 인간은 스스로 조정할 수 있고, 책임을 수용하고 일을 놀이처럼 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한다는 견해에 입각한 경영철학을 강조하였다. 위의 이론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 동기 부여 이론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Argyris는 관료 조직은 개인의 의존성과 수동성을 증가시켜 창의성과 능동성을 촉진시키지 못하는 권위 구조라고 주장하였다.

Shein에 의하면 고전적 접근법이 돈 또는 물질적 보수에 자극되는 존재로서의 경제인관을 가지며 인간관계 접근법이 인간관계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동물로서의 사회인간의 이론에 기초를 둔 데 비하여 인적자원 접근법은 자아성취를 위하여 자율과 자치를 희망하고 책임을 지고 조직의 목표달성에 협력하는 이타의 인간, 즉 자아실현관에 입각하여 이론을 전개하였다. 요약하면, 인적자원학파는 인간을 인적자원으로 승화시켜 삶의 질 향상 및 인적자원 가치의 증대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인적자원학파의 인간관에 관한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인적자원 학파의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조직원들은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사회적 욕구, 자기 충족적 욕구 및 자기 성취적 욕구가 있으며 하위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면 상위 단계의 욕구를 성취하고자 한다. 둘째, 자아성취를 위하여 자율과 자치를 희망하고 창의적이며 자율적으로 과업을 수행한다. 셋째,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신의 의사가 반영된 경우 조직의 목표가 더욱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목표달성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이러한 경우 일을 놀이처럼 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한다.

#### 4. 자아주도형 자기개발 접근

미래 환경의 변화 및 조직의 변화를 고려할 때 요구되는 새로운 인간상을 그려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조직의 변화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스스로 개발한다. 둘째, X세대의 경우처럼 회사 내에서 승진하는 것이나 한 가지 형태의 일에 자신의 경력을 쌓는데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고 있으며 자신에 대한 학습과 자신의 개인가치를 표현하기 위하여 매우 다양한 종류의 작업을 창의적 자발적으로 개발하기를 희망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셋째, 회사내 관계보다는 외부와의 관계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외부와의 네트워크 개발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한다. 넷째, 기업내 재구조화와 다운사이징이 끊임없이 활발하게 발생함으로써 기존의 사용자와 종업원간의 전통적인 계약이 파기됨에 따라 종업원들은 보다 앞선 기술, 지식 및 노하우 등에 대한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특히, 첨단 과학기술의 경우 숙련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는 더욱 강화되기 때문에 교육훈련을 포함한 인적자원개발이 물질적 보상 외에 중요한 종업원의 협상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네 가지 접근법을 학문적 조류, 배경 및 주요 내용에 따라 나누면 아래의 표와 같다.

접근	인간관
고전적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업원관: 매우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을 시키는 대로 따라 함. 매우 수동적, 사고 활동이나 대화, 창의력, 상상력의 틈이 전혀 없는,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로봇</li> <li>- 관리자형: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 권위나 돈, 위계제도 등과 같은 조직의 메커니즘을 활용. 종업원을 통제하고 군림하는 역할</li> <li>* 물화되고 도구화된 기계적 인간관(경제적 행동)</li> </ul>
인간 관계론적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인 가설의 협동적 개인이라는 인간관을 기초로 함</li> <li>- 종업원은 사회적인 필요에 의하여 동기부여를 받고 상호연관을 통하여 동일성(a sense of identity)을 가짐.</li> <li>- 종업원은 경영진이 제공하는 인센티브나 규정보다 동료들이 행사하는 사회적인 힘에 잘 반응함.</li> <li>- 종업원은 자신들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경영진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함</li> <li>- 관리자들은 조직의 효율 증진 위하여 종업원들의 참여를 유도함</li> <li>* 관계중심의 유기적이고 협력적 인간관(사회적 행동)</li> </ul>
인적자원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원들은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사회적 욕구, 자기 충족적 욕구 및 자기 성취적 욕구가 있으며 하위단계의 욕구가 충족되면 상위 단계의 욕구를 성취하고자 함</li> <li>- 자아성취를 위하여 자율과 자치를 희망하고 책임을 지고 조직의 목표달성에 협력함.</li> <li>- 인간은 자아 통제를 할 수 있고, 책임을 수용하고 일을 놀이처럼 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함</li> <li>* 욕구충족적 인간관</li> </ul>
자기주도형 자아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기 관리 및 개발, 의사결정 능력 개발에 매진, 의미 있는 목표에 공헌함.</li> </ul>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 학습과 다양한 가치표현, 창의적 자율적 과업수행</li> <li>- 다양한 경력개발 및 네트워크 형성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인간형</li> </ul> <p>* 인본주의적 인간관</p>
----	--

주) 조은상(2001)의 자료를 참고하여 일부 수정함.

<표 2> 경영학의 역사와 인간관의 변화

#### 4. 경영학적 인간론의 한계

오늘날 기업경영은 Talyor가 깔아 놓은 경영학적 배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의 계량적 관리기법은 20세기 경영이념으로 이데올로기화되어 있다. 그는 노동자의 삶을 성과급에 연연해하는 기계의 부품처럼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의 주된 관심사는 인간이라기보다는 합리화와 생산성이었다. 과학적 관리의 이데올로기에서 시작된 오늘날 경영학이 인간에 대한 관심보다는 성과급과 생산성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기업조직의 구성원들은 영혼이 있는 실존적 존재가 아니라 숫자로 표현되는 인적자원(human resource)일 뿐이다.

Barnard(1936)는 조직을 오늘날과 같은 성과급의 경쟁체계가 아닌 협동체계로 파악했다. 하지만 그 후학들은 인간의 협력 의지도 숫자로 전환시켰다. 인간의 사고력과 의지,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들을 경제적 가치로 환원하여 자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돈으로 바꾸어 버렸다. 그리하여 인간의 행위가 인적자원으로 전환된 것이다. 경영학은 이 자원을 기업조직의 공동목적을 향하여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에 집중했다.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들이 모여 합리적인 계량모형을 만들어 자본시장을 공략했지만, 인간의 행위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과 숫자가 인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경영이론가들이 계량화된 숫자와 계량모형만이 기업경영의 전부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다(최동석, 2013).

인간이 만든 합리적, 계량적, 과학적 모델은 세상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다. 천재들이라 할지라도 서로 협력하지 않고는 높은 성과를 낼 수 없다. 숫자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협력의지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마찬가지이다. 인간의 지성과 감성의 한계 때문이 아니라 이 세계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과학적 연구가 진전되면 인간이 만든 합리적 모델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될 거라는 신념이 사라지지 않는다(최동석, 2013).

인간을 자원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조직의 구조가 아무리 바뀌어도 인간은 자원 이상의 대접을 받을 수 없다. 매출이나 이익을 내는 수단으로 간주될 뿐이다. 인간은 그저 노동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 전락한다.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는 그 어떤 구조적·시스템적 변화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인간의 존재 그 자체를 세상의 다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것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즉 인간의 존재를 실존으로 바라볼 때 조직구조와 시스템의 변화가 비로소 생산성의 차이를 가져온다. 진정으로 생산성을 강조하는 경영학이라면 당연히 구성원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타고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철학적 질문과 개념들, 심리학적 이론과 처방들, 그리고 경영학적 관행과 제도를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합리화와 계량화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 있어서 진

정으로 중요한 것은 결코 합리화되지 않는 영역에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Barnard(1936)가 제시한 것처럼 계량화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가려서 조직에 영혼을 불어 넣어야 한다. 그래야 조직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개인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고, 조직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하는 인식은 개인의 내부가 아닌 외부환경에서 생겨야 한다. 이 인식은 사회적, 윤리적, 종교적 가치다. 이 가치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는 지성과 영감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성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서로 얽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이 지성은 공식적인 교육보다 협력의 경험에서 생기는 것이다. 영감은 조직에 통일감을 주고 공동의 이상을 창조하기 위해 필요하다. 구성원들이 이 이상을 지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마음으로부터 수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오늘날 여러 사건을 제대로 관찰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동의 이상에 대한 신념이 구성원들의 협동을 이끌어내는 데 필수 불가결한 것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것이다(Barnard, 1936).

#### IV. 개혁주의 인간관의 경영학 적용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좇음이요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골로새서2:6-10, 20).”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경영의 실현을 위해서는 우선적이고 근본적으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즉 기독교, 특히 개혁주의 신앙에 기초한 인간관이 중요하다는 가정에서 개혁주의 인간론을 고찰하였다. 또한 지금까지의 경영학에서 인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왔는지를 역사적 흐름에 따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기독교적 인간론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이해하고 구원, 교회, 종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세상의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안도 제시해 주어야 한다(Hoekema, 1986). 따라서 앞에서 논의한 기독교, 특히 개혁주의 신앙의 인간론은 오늘날 우리의 일상생활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기업활동, 즉 경영에도 적절한 방안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 1. 개혁주의 인간론과 경영학적 인간론의 비교

앞에서 논의한 개혁주의 인간론과 경영학적 인간론을 비교하면 <표 3>과 같다. 경영학에 적용을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인간을 크게 본질, 행동 그리고 가치 혹은 목적(최종가치와 수단가치)이라는 측면에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개혁주의 신앙에서의 인간의 본질적 특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격체로서의 인간과 죄로 인해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변질되고 삼중적 관계가 파괴된 인간의 이중성이다. 이러한 인간은 궁극적인 행복, 선, 거룩, 영생의 가치를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즐거워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러한 인간의 행동은 하나님 형상과 삼중관계의 회복이라는 구원의 과정이며 이 과정을 이끌어 가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실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간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경영학은 기업조직을 대상으로 이윤 극대화라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통제 수단으로 사용하여 왔다. 과학적 관리를 시작으로 관계적 접근, 인적자원 접근, 자기주도 자아개발 접근으로 변화하면서 인간행동의 초점을 변화되어 왔으나 기본적인 인간관은 유물론적 인간관, 즉 물화된 도구적이고 기계적 인간관과 자기중심의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인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구분		개혁주의 인간론	경영학적 인간론
가치	최종	종았더라(토브): 행복, 기록, 선, 영생	행복(이윤)
	수단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즐거워 함	효율성과 생산성을 통제함(측정과 통제)
행동		-하나님 형상(기능측면)과 삼중관계(하나님 전적의존, 타인과 협력, 자연 다스림과 보호) 회복(구원)과정 -하나님과 이웃 사랑 -예수그리스도 -삼위하나님으로부터 이끌림	-고전적 접근: 도구적이고 기계적 행동 -관계적 접근: 사회 관계적 행동 -인적자원 접근: 욕구충족행동 -자기주도 자아개발 접근: 자기중심행동
본질		개혁주의 인간관(이중적 인간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된 인간 -죄로 인해 타락한(변질된 형상, 관계파괴) 인간	-유물론적(물화된 도구적이고 기계적)인간 -인간(자기) 중심의 이기적이고 합리적 인간

<표 3> 개혁주의 인간론과 경영학적 인간론 비교

## 2. 기독교적 경영의 현실

국내의 경우 경영학 분야에서 성경적인 원리의 적용에 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근본적으로 신앙과 학문의 양립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상황에서 과학적 연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또한 묵시의 세계인 하나님과 그 나라에 대해 인간의 지혜로서는 이해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신앙을 실용 학문의 과학적 연구에 적용하려는 노력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인간의 삶의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인 지향점이라는 측면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다양한 도전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신앙과 삶의 괴리 현상이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또 다른 측면에서의 선교적 사명일 것이다.

기독교경영이란 성경에서 기업에 적용 가능한 원리를 찾아내어 현실경영에 적용하는 것(정충영, 2007)이며, 기업경영에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뜻에 따라 기업경영활동을 통한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종업원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일련의 활동이라 할 수 있다(배종석 등, 2010). 현재, 기독교경영학자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 기독교경영연구원과 한국로고스경영학회의 설립취지와 비전을 통해 기독교경영의 의미를 찾아보면, 먼저 기독교경영연구원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업경영과 선교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경영학자, 기업인, 전문인 및 직장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연구, 교육, 봉사, 선교하는 기관이라는 설립취지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신앙, 지식 및 사역공동체로서 성경적 세계관을 기본으로 기업경영과 성경원리를 적용하는데 기

여하는 전문기관으로 비전을 소개하고 있다.

한국로고스경영학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경영원리와는 다른 경영원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성경적인 경영원리를 탐색하여 현실 경영에 적용하는 즉, CEO로서 예수께서 실천하신 성경적인 경영원리들을 연구하고 체계화하여 적용하기 위해 설립된 학회이다. 정충영(2007)은 두 기관의 설립취지와 비전을 비교하면서 기독교경영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독교경영은 경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기업경영을 통해 복음전파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초점은 경영의 원리와 이의 적용에 맞춰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즉, 기업이 산출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기에 이러한 기업의 사명보다 선교적 사명이 더 중요하게 판단하게 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함을 강조하면서 기독교경영의 연구결과들을 기업 현장에서 적용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

기독교경영을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성경의 원리들은 생명의 보존과 창조질서의 원리, 사랑의 원리, 청지기 원리, 섬기는 종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확장원리, 율법의 원리 등을 주장하였다(정충영, 2007). 고성삼 등(2009)은 기독교경영과 일반경영과의 차이점으로 기독교경영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창조명령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현장을 기업으로 인식하고 단순히 주주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명령의 수행 파트너로 하나님 나라의 자원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기독교경영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중시함으로 창의성이 회복된 공동체성이 가능한 존재로 종업원과 고객 및 거래처를 가족 같은 마음으로 경영원리를 적용하고, 노동의 기쁨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관과 노동관으로 비전경영, 섬김의 경영, 신뢰의 경영, 정직의 경영, 사회적 책임경영 등으로 그 특징을 정의하였다. 배종석 등(2010)은 기독교경영을 기업에서 경영활동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표출되어야 하며, 이런 대전제들은 기업 활동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삶 전체와 다른 영역에서도 실현되어야 하기에 청지기 정신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기독교경영의 핵심원리로 창조, 책임, 배려, 공의 및 신뢰 5가지를 정의하고 있다.

### 3. 기독교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 3.1 기업에 대한 이해

기업이란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 협력하고 의사결정하는 체계로서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배종석 등(2010)은 기독교기업이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들이 부여받은 달란트와 다른 자원을 청지기적으로 활용하여 가치창출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한다. 즉, 사람이 주체가 되어 자원을 수단으로 하여 가치창출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목적의 사회적 공동체로서 그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기업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논의한 개혁주의 인간론에 근거하여 기업은 창조된 인격체인 동시에 불순종으로 인해 타락한 죄인의 양면성을 가진 사람들이 부여받은 재능과 능력(형상의 구조적 측면)과 다른 자원을 활용하여 궁극적인 영생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가치를 목적으로 하나님과 이웃 사랑의 표본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삼위하나님의 통치(이끌림)가 있는 공동체라고 정의한다.

#### 3.2 기독교경영의 과제

기독교기업의 정의의 변화에 따라 경영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영이란 어떤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자원 활용을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말한다. 기독교경영이란 핵심목적을 탁월하게 달성하기 위해 성경적 원리를 가치창출 활동에 적용해 가는 과정이다(배종석 등, 2010). 여기서 기독교경영의 몇 가지 과제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적의 도출인데, 여기서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을 완벽하게 행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목적이다. 둘째, 목적을 탁월하게 성취해야 하는 원리는 변질된 하나님 형상과 파괴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능적 측면의 하나님 형상, 즉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구조적 형상)을 하나님 지향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삼중관계의 회복은 하나님에의 전적의존, 타인과 협력 그리고 자연을 다스리고 보호하는 것이다. 하나님 전적의존은 청지기로서 완벽한 대리인으로서 책임있고 성실하게 경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타인과 협력은 상호존중과 상생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말한다. 자연과 관계는 사회적 책임과 지속적 경영과 관련된 것이다. 셋째, 가치창출 활동으로 경영의 전 영역으로 표현되는 구조에 해당한다. 넷째, 적용 과정은 구조적 및 과정적 적용, 즉 사람과 제도에 성경적 원리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 V. 결론

그 동안의 경영학은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이윤 극대화라는 목적을 어떻게 충족시켜줄 것인가에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는 것이다. 그 결과 경영학은 지나치게 편협한 관점에서 방법론 중심의 학문으로 인식되어 버렸으며, 이러한 경영학으로는 오늘날 기업조직이 직면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뿐만 아니라 경영이론을 도입하여 문제해결을 하고자 하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에도 적절한 해결책은 제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영학이 직면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경영학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측면에 대한 비판과 논의를 통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만 할 것이다. 신앙이든 학문이든 그 본질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핵심이슈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된다. 왜냐하면, 신앙생활과 경영활동의 주체로서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신앙과 경영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방식인 패러다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경영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며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진리는 성경적 인간관에 입각해야만 한다는 것을 규명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경영 패러다임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인간론, 특히 개혁주의의 인간론을 바탕으로 논의했다. 개혁주의 신앙에서의 인간의 본질적 특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격체로서의 인간과 죄로 인해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변질되고 삼중적 관계가 파괴된 인간의 이중성이다. 이러한 인간은 궁극적인 행복, 선, 거룩, 영생의 가치를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즐거워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러한 인간의 행동은 하나님 형상과 삼중관계의 회복이라는 구원의 과정이며 이 과정을 이끌어 가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실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간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둘째, 기존의 경영학에 대한 문제점과 그 원인을 인간관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했다. 지금까지의 경영학은 기업조직을 대상으로 이윤 극대화라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통제 수단으로 사용하여 왔다. 과학적 관리를 시작으로 관계적 접근, 인적자원 접근, 자기주도 자아개발 접근으로 변화하면서 인간행동의 초점을 변화되어 왔으나 기본적인 인간관은 유물론적 인간관, 즉 물화된 도구적

이고 기계적 인간관과 자기중심의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인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셋째, 개혁주의 인간론의 경영학 적용을 통해 새로운 경영학의 패러다임을 제안하였다. 개혁주의 인간론에 근거하여 기업은 창조된 인격체인 동시에 불순종으로 인해 타락한 죄인의 양면성을 가진 사람들이 부여받은 재능과 능력(형상의 구조적 측면)과 다른 자원을 활용하여 궁극적인 영생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가치를 목적으로 하나님과 이웃 사랑의 표본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삼위하나님의 통치(이끌림)가 있는 공동체라고 정의하였다. 기독교경영이란 핵심목적을 탁월하게 달성하기 위해 성경적 원리를 가치창출 활동에 적용해 가는 과정인데, 기독교경영의 몇 가지 과제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적의 도출인데, 여기서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을 완벽하게 행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목적이다. 둘째, 목적을 탁월하게 성취해야 하는 원리는 변질된 하나님 형상과 파괴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셋째, 가치창출 활동으로 경영의 전 영역으로 표현되는 구조에 해당한다. 넷째, 적용 과정은 구조적 및 과정적 적용, 즉 사람과 제도에 성경적 원리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경영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신앙과 학문을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본질적인 성격이 다른 두 분야를 어떻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연결하고 논증할 것인가는 이제부터 더 많은 고민과 수고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론적 탐색연구가 갖고 있는 한계뿐만 아니라 논리적 추론에도 상당한 비약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는 앞으로 더욱 많은 자료와 연구를 바탕으로 보완해야만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성삼·강철승·유재형 (2009). “성서에 나타난 경영사상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 22(1). 561-574.
- 김성수 (2008).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개혁주의 교리 강단』. Praise Publishing.
- 김웅기 (2013). 후크마의 하나님의 형상 이해에 대한 비평적 고찰과 교육적 함의 연구. 『성경과 신학』 68. 27-54.
- 박준서 (1989).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성서적 이해.” 『기독교사상』 33(9). 104-120.
- 배종석·박철·황호찬·한정화 (2010). 『기독교경영 Just ABC』. 예영커뮤니케이션.
- 서창원 (2003). “현대 신학적 인간론.” 『신학과 세계』. 46. 254-272.m
- 정충영 (2007). “기독교경영의 타당성과 기독교적 기업의 판별.” 『로고스경영연구』 5(3). 21-40.
- 조은상 (2001). 『인적자원개발: 다학문적 접근』. 연구자료 01-17.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동석 (2013). 『인간의 이름으로 다시쓰는 경영학』. 21세기북스.
- Berkouwer, G. C. (1978). *Man: The Image of God*.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 Calvin, J. (1536).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양낙홍 역(2008). 『기독교강요』. 크리스찬다이제스트.
- Hoekema, A. A. (1986). *Created in God's Image*. 이용중 역(2012). 『개혁주의 인간론』. 부흥과 개혁사.
- Jensen, M. C (1998). *Foundations of Organizational Strategy*. 구본혁 역 (2011). 『잘나가는 기업의 조건』. 라이프맵.
- Jensen, M. C and W. H. Mechling (1994), "The Nature of Man." *Journal of Applied Corporate Finance*, 7(2), 4-19